

광주 수출기업 88%, 美관세 부정 영향 우려

ECONOMY

2025년 3월 28일 금요일

■ 광주FTA통상진흥센터 의견조사

‘시장경쟁력 하락 따른 매출 감소’ 최대 애로 FTA 재협상·물류비 등 정부 정책지원 요구도

광주지역 수출기업 10곳 중 8곳이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7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 FTA통상진흥센터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지원정책 의견을 파악하고자 지

역 수출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‘트럼프 2기 관세정책 관련 지역 수출기업 영향 및 지원정책 의견 조사’를 시행했다.

그 결과, 지역 수출기업이 트럼프 2기 관세부과 방침 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과 관련해 ‘자동차·반도체·의약품 대상 25% 관세 부과’의 영향을 받

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36.2%로 가장 많았다.

이어 ‘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% 추가 관세 부과 및 소재 면세 제도 혜택 박탈(30.9%)’, ‘철강·알루미늄 제품 대상 25% 추가 관세부과(24.5%)’, ‘캐나다, 멕시코산 제품 대상 25% 관세 부과(10.6%)’에 대한 영향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아울러 응답기업의 88.0%가 관세부과가 본격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응답했다. 영향이 없거나 긍정적인 것이라는 응답은 12.0%에 불과했다.

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‘시장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(73.3%)’를 가장 많이 꼽았다. 그 외에 ‘국내·외 거래처와의 교역 조건 악화(35.6%)’, ‘국내 원정기업의 현지생산 이전·확대에 따른 주문량 감소(23.3%)’, ‘해외 거래처의 거래선 변경(14.4%)’ 등도 우려했다.

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지역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 55.0%가 ‘아직은 동향 모니터링 중’이라고 응답했으며 ‘원가절감 및 긴축경영 도입(21.0%)’, ‘대체시장 발굴(7.0%)’, ‘내수비중 확대(6.0%)’, ‘고부가가치 제품

개발(4.0%)’ 등이 뒤를 이었다.

트럼프 정부 관세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서는 ‘한-미 FTA의 재협상을 통해 수출기업 피해 최소화’를 바라는 응답자가 39.0%로 가장 많았다. ‘물류·통관비 지원(23.0%)’, ‘자금 지원(21.0%)’, ‘정부의 R&D 투자(9.0%)’, ‘신용 유망시장 개척 지원(6.0%)’ 등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.

트럼프 관세정책 전개에 따른 어려움 극복을 위해 FTA센터에 희망하는 지원과제는 ‘수출입통관 애로 지원(39.2%)’ 요구가 가장 많았다. 또 ‘한-미 FTA 관세 해

택 활용 컨설팅(36.1%)’, ‘신용 유망시장 개척 및 정보 제공(24.7%)’, ‘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 교육(21.6%)’ 등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“트럼프 2기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으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와 경영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”며 “기업들이 관세부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애로 지원과 FTA 활용 컨설팅은 물론, 수출권 다변화를 위한 교육·정보제공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송대용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청년 안정적 창업 생태계 구축 ‘맞손’

청년창업사관학교-나주시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나주시가 청년들의 안정적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힘을 모은다. 청년창업사관학교는 27일 나주시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제공 및 지역 내 창업 활성화,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쏟는다.

나주시는 청년 창업 공간 구축과 임대료 지원 등 안정적인 창업 환경(사업장 공간)을 조성하고 전남청년창업



사관학교는 교육 및 정책자금 지원과 후속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한다.

송대용 기자 sdw0918@
나주=조현천 기자 pose007@



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청사 교육실에서 ‘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’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.

중기청-5개 정책금융기관 중기 애로 해소 킷오프 회의

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7일 청사 교육실에서 ‘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’ 킷오프 회의를 개최했다.

협의회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에 대응하고,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·공동대응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·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됐다.

위원장인 광주전남중기청장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본부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본부, 기술보증기금 호남본부, 광주신용보증재단,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 5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.

정책제안 및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중기부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급하는 한편, 향후 지역의 신속·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을 협의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. 이번 킷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격월로 개최할 계획이다.

이선석 광주전남중기청장 직무대리는 “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미국 관세 부과 등에 따른 금융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”라며 “이번에 출범한 중소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통해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송대용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빚 갚기 힘든 고위험가구 39만... “지방 더 취약”

주택가격 하락에 올해 비중 5.6%까지 증가 전망

올해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가격이 시장 예상대로 떨어질 경우 소득·자산 측면에서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한 지방 취약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 38만6000가구로,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.2%를 차지했다.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72조300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4.9%에 해당했다.

고위험 가구는 금융부채를 안고 있는

가구 가운데 총채원리금상환비율(DSR)이 40%를 넘고, 자산대부채비율(DTA)도 100%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소득과 자산 측면에서 모두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.

고위험 가구 수와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(3.5%·6.2%)보다 떨어졌지만, 2022년(2.6%·3.8%)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소득 또는 자산 한 가지 측면에서라도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모두 356만 6000가구,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

584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.

특히 지방의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부채 보유자의 자산이 줄어 상환 고위험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.

한은이 금리·주택가격 변동분과 주택가격 전망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, 2024년 말 지방과 수도권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각 5.4%, 4.3%로 추정됐다. 하지만 올해 말에는 지방은 5.6%로 더 커지고 수도권은 4.0%로 떨어져 비중 차이가 1.6%포인트(p)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.

한은은 “서울 등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미분양이 늘어나고 건설 경기가 부진한 지역의 경우 고위험 가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”고 말했다. 정현아 기자 aura@

레인보우 버블잼 시즌2 내달 9일 첫방송

GICON 제작 지원...완구 사업도

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(GICON)은 지역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 ㈜캠프파이어애니웍스(대표 나용근)의 대표작 ‘레인보우 버블잼’ 시즌2가 다음달 9일 오전 7시 45분 EBS에서 첫 방송된다고 27일 밝혔다.

이번 시즌2는 ‘시크릿’이라는 부제를 달고 강렬한 액션, 업그레이드된 마법, 새로운 스토리 전개로 돌아왔다. 주인공 퍼플

이 ‘공주사전’을 만들며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며, EBS 방영 이후 제능TV(4월 22일), 대교 어린이TV 등 케이블 채널과 IPTV 플랫폼에서도 순차적으로 방영될 예정이다.

나용근 대표는 “‘레인보우 버블잼’을 한국과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IP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며 “특히 GICON의 지원으로 탄생한 시즌1의 성과를 바탕으로, 완구 및 라이선싱 사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 송대용 기자 sdw0918@

Sky is unlimited

취업성공!
탁월한 선택!

항공 특성화 대학

초당대학교

www.cdu.ac.kr

항공특성화 대학

- 항공운항학과
- 항공정비학과
- 항공모빌리티학과
- 항공관광서비스학과

간호대학

- 간호학과
- 치위생학과

산의애인대학

- 스포츠경기지도학과
- 뷰티디자인학과
-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
- 군사학과
- 사회복지상담학과
- 소방행정학과
- 의약관리학과

글로벌비즈니스대학

- 글로벌비즈니스학과
-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
- 글로벌실버케어학과
- 글로벌조선학과
- 글로벌화학기계공학과
- 국제학과

글로벌비즈니스대학
UCC 자율적응교육